

國際原油市場 展望과 課題

市場메커니즘과 政策誘導



지난 2월 18일 基準價格을 내림으로써 OPEC產 原油價格引下를 先導했던 英國이 또 다시 北海產原油의 기준가격을 배럴당 30.50달러에서 30달러로 50센트를 추가인하했다. 北海產油價의 추가인하는 석유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예측했던 것으로서 지난 2월 18일 30.50달러로 가격을 인하한 北海產原油는 이와 同質油를 생산하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自國產가격을 北海產原油보다 50센트나 밀도는 30달러로 결정함에 따라 市場 경쟁력을 상실해 왔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가 自國產 원유가격을 다시 인하하지 않고, 경쟁국인 英國의 北海產原油의 추가인하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OPEC의 새 油價體制가 적어도 당분간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세계의 石油 수요증가에 따라 금년 3/4分期中の 現物油價가 OPEC의 基準油價인 배럴당 29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며, 국제석유가격은 오는 84년까지 29달러線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石油의 공급과잉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한 OPEC의 새로운 油價體制와 產油쿼터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을지의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北海產油價로 석유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늘의 世界石油情勢는 北海產原油價의 추가인하에 그치지 않고, 다른 產油國에 의한 油價引下 경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 근거는 供給過剩이라는 原油需給의 불균형과 現物市場거래량의 증가라는 去來方式의 변화가 원유가격을 과거와 같은 產油國의 카르텔로 人爲的으로 控制할 수 없게 하는 한편 市場메커니즘에 의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OPEC產油量은 非OPEC產油國의 增產으로 全世界生産량의 40%線으로 축소됨으로써

原油價에 대한 카르텔기능을 상실했다. OPEC는 배럴당 29달러로 내린 基準油價의 固守策으로 全會員國의 產油쿼터를 1천 7백50만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는 OPEC련던石油相會議까지의 OPEC實質生産量 1천 4백만배럴을 3백50만배럴이나 상회하는 것으로 만일 OPEC가 이 上限量을 생산할 경우, 原油價의 추가인하를 재촉할 공급과잉에 拍車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對이라크戰의 戰費조달에 물리고 있는 이란은 벌써부터 이 쿼터에 의해 配定된 產油量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增産을 비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계절적인 非需要期를 맞는 原油는 더욱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供給過剩과 함께 앞으로 原油價格의 軟調계속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石油需給의 媒介機構, 즉 去來方式의 變化를 들 수 있다. 73년의 第1次 石油危機 이전까지는 세계의 原油去來의 점유율에 있어서 OPEC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으며, OPEC原油의 90% 이상이 메이저에 의해 취급되었다. 다시 말해서 OPEC와 메이저간의 去來범위안에서 세계의 原油價格안정이 유지됐던 것이다.

그러나 OPEC의 占有率이 40%線으로 축소된 오늘에 있어서는 去來形態도 一般長期계약 이외에 G-G(政府間 去來)D-D(직접거래) 스파트(現物市場 거래)로 多元化되는 추세하에서 특히 과거 5% 정도에 그쳤던 現物市場去來는 이제 全石油去來의 30~40%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非OPEC原油는 원칙적으로 OPEC가격의 규제 밖에서 높고 있다.

또 한가지 注目할 것은 엑슨, 모빌, 텍사코, 소칼등 美國系 아람코 4社가 건설한 重質油分解시설이 빠르면 올해부터 稼動단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하루 7백만~8백만배럴의 이 시설들이 가동될 경우, 이들 메이저들은 값싼 重質油로부터 휘발유, 中間石油製品을 정제할 수 있게 되므로 北海産原油나 北아프리카 産原油같은

高質原油를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北海·北아프리카·알제리産原油는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현재의 原油價格軟調추세는 앞으로 中東지역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 같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市場메커니즘과 政策誘導가 요구되고 있다.

石油價格은 에너지價格決定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石油價格이 下向조정될 경우, 各種에너지간의 相對價格關係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石油의 가격변화가 어느 정도의 幅이나, 이에 대해 어느 에너지價格이 얼마나 바뀌느냐하는 정도는 各에너지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에너지價格動向의 不可知性이 에너지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의 選擇은 시장에서의 價格메커니즘의 작용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에는 税金, 基金등의 정부부문비용과 같은 非價格的, 非競爭的 요소의 제약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政策은 對內的 배려와 아울러 그 政策선택이 세계에너지시장에 미치는 對外的 영향도 重視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에너지政策의 기본적인 목표는 에너지供給에 있어서 安定性, 經濟性(效率性), 戰略性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原油정세의 變化에 대응하여 가장 유리한 에너지 政策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 經濟에 그 혜택이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精油社들도 석유정세의 變化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導入先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하고, 現물시장의 값싼 原油의 도입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個別 精油社의 對외교섭창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원유시장에 대한 정보체제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 (金乾洽·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